

진안서 즐기는 ‘산골애찬 미식투어’ 지적재조사사업 효율 높인다

고원음식·관광지 결합 체험형 미식여행 ‘호응’ ... 11월 1일 마지막 회차 예정

진안군이 추진 중인 ‘산골애찬 미식투어’가 매회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진안의 맛과 멋을 알리는 대표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미식투어는 진안의 지리적 특성인 고원을 음식과 결합한 ‘고원음식’ 통합홍보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청정 식재료를 만든 음식과 주요 관광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투어는 11월 1일까지 총 4회 진행되며, 회차마다 1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진안의 가을 풍경과 산골애찬 브랜드로 개발된 고원음식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1·2회차는 가을꽃축제 기간에 맞춰 운영돼,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묵밥, 흑돼지 등 지역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을 맛보았다.

이어 3회차에서는 운일안반일암 숲길에서 휴식과 미식을 동시에 즐겼다. 마지막 4회차는 오는 11월 1일 부귀메타세쿼이아길과 마이산탐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가을 정취 속에 ‘마이산힐링하루



진안군이 추진 중인 ‘산골애찬 미식투어’가 매회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진안의 맛과 멋을 알리는 대표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 ‘홍연’ 등 산골애찬 참여업소의 특별한 한상차림이 준비된다. 진안군은 이번 미식투어를 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참여자들이 블로그와 SNS에 올린 후기 콘텐츠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모든 회차가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진안의 미식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

끌고 있다는 평가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의 미식투어는 자연과 음식이 어우러진 고원형 관광 모델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과 음식문화를 활용한 진안형 미식관광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오산시, 교류·상생 협력 다짐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24일 오산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뜻깊은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수확 체험과 함께 진행되어 양 지역 주민 간 우정을 다지고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오산시민들이 장수군의 청정 자연 속 사과밭에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직접 수확하며 장수 사과와 품질과 품미를 체험했다.



현장에서는 사과 수확 요령과 품질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딴 사과를 상자에 담아 1인당 5kg씩 가져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사과따기 체험을 마친 후, 오후에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이

관재 오산시장, 오산시 교류협회 심재철 회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심 회장은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심재철 오산시 교류협회장은 “기부금이 장수군의 지역사회와 군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관재 오산시장은 “장수군과의 인연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상생 발전을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청정 농업도시 장수군을 찾아주신 오산시 교류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률 97% 넘어

진안군은 오는 31일 마감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신청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안내 등 막바지 신청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

은 28일 기준 97% 이상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군은 아직 쿠폰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를 한층 강화하여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 등 신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군은 신청 마감에 임박함에 따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마을 방송과 개별 연락을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미신청자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현장사무소 운영

무주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설천면 배방 1, 2지구·월현지구·심곡지구에서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은 올해 설천면 배방 1, 2지구·월현지구·심곡지구 등 4개 지구 1,165필지, 566,514㎡ 규모에서 지적재조사 총량, 경계 협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배방 1, 2지구, 20일부터 22일까지 월현지구, 27일부터 29일까지 심곡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마을회관에 마련된 현장사무소에는 관련 분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



사 직원이 상주하며 토지소유주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배방 1, 2지구에서는 112건, 월현지구에서는 85건의 협의를 마쳤으며, 심곡지구에서는 현재까지 42건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해당 기간 중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주는 무주군청 민원봉사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문의(063-320-2724)하면 경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무주사랑상품권 혜택 ↑

무주군은 29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무주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행사로, 행사 기간 중 페스티벌 기간에 무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15% 선할인에 더해, 추가 5% 캐시백이 추가로 적립된다.

캐시백은 무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고향사랑페이 앱(APP)을 통해 즉시 자동 적립되며, 지류 상품권과 정책수당 결제는 제외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9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의 한도를 30만 원 증액해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할인율도 15%로 상향한 상태”라며 “이번 5% 캐시백까지 더해지면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여가 생활도 누리 보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8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동안 이어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국회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복)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8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발생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5건의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했다.

장정복 위원장은 사업 추진 전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 시행에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각종 시범 사업에 많은 농가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2026년 전북도민 체전 실무추진단 회의

진안군은 오는 2026년에 열리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 및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를 28일 군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민체전이 진안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주영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국소장 및 전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전반 △상징물 및 성화대 소개 △개·폐회식 등 행사 △각 부서 담당업무 등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문제점 개선을 지속 진행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장수군은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소규모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바이러스·세균·독소 등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생물테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장수군보건의료원 직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7733부대 2대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이론교육 △개인보호복(Level A·C) 착용·탈의 실습 △독소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교육 △검체 포장 및 안전 이송 절차 등 실천형 교육을 진행하며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장수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테러나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